2019.04.21. 참사랑교회 주일낮예배

모든 옛 틀을 새 틀로 바꾸는 사순절과 부활절

-복음으로 여는 부활절-

이사야53:1-6, 요한복음 11:25-26

정윤돈 목사님

"하나님. 아무도 올 수 없는 이 현장에 부활 주일 날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찬양을 준비한 찬양대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체 인생이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증거 되는 이 말씀이 나에게 언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를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게 하시며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지 않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모든 옛 틀을 새 틀로 바꾸는 사순절과 부활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사순절에 대해 어린 랜넌트들은 잘 모를 수가 있겠다. 몇 가지 용어를 잘 알아야겠다. 사는 '四(넷, 4)'자이고 순은 '旬(열흘, 10)'자 이다. 그래서 사순절은 40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순절의 시작은 AD 325년에 니케아공회에서 정식적으로 기독교의 명절로 공인된 이후 지금까지 지켜온 중요한 절기이다. 그러나 이 사순절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기 전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금식하고 고기도 먹지 않고, 세례자 교육도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지내자는 의도였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브라질에서 매년 열리고 있는 '리우 쌈바 카니발'이다. 이것을 사육제라고 한다. 왜 사육제라고 하냐면, 선사할 때 '사'이고 '육'은 고기 '육'이다. 그러니까 고기를 선사한다는 뜻이다. 40일 동안 고기를 절제해야하기 때문에 그 전에 3-5일, 일주일 정도 영양을 미리 섭취하자는 뜻으로,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다. 그래서 고기를 미리 선물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로는 재의 수요일이라고, 주일을 빼고 40일이 되는 날이 수요일인데 그 날을 뜻한다.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재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재를 이마에다가 발라 십자가를 그린다. 사순절의 시작이 재의 수요일인 것이다. 근데 그 며칠간이 사육제이다. 사육제가 브라질로 넘어가면서 '카니발'이 된 것이다. 카니발은 고기를 절제한다는 뜻이다. 앞으로 고기를 안 먹으니까 미리 먹자는 것이다. 그래서 사순절 이전에 3-6일 동안에 축제를 여는데, 아프리카 노예들이 온 것이 섞여서 쌈바 축제, 학교가 만들어지는 등, 지금은 총기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타락한 날이 되었고, 그 기간이 끝나면 사순절 동안 금식하지 않고 더욱 타락한다. 이렇게 변질되었다. 사실은 부활절 전 40일을 지키는 것은 성경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없애려고 한다. 오히려 부활 후 40일이 성경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다. 집중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10일. 오히려 부활 후 40일, 50일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성경적이라고 한다. 브니엘 신학교 총장인 최덕순 교수님은 사순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순절은 인간이 고안한 교회명절이다.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 그래서 대요리문답을 보면 개신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놓은 모든 절기와 미신적인 것, 방조, 위선을 조장하는 것들은 지켜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 중에 바로 천주교가 만든 사순절이 미신적인 것이며 방종하며 위선적인 것을 그것을 지켜서는 안 된다고 한다. 네덜란드에 있는 개혁교회 목사님들이나, 칼빈의 후예들도 천주교가 만든 사순절은 비성경적이어서 지키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미 다 정리해뒀다. 우리는 사순절을 좋은 의미로 지킨다. 고난 주간은 지켜야 한다. 40은 고난의 숫자이다. 광야 40년, 예수님이 40일 금식했고, 노아의 방주에서 40일이라는 개념이 나온다. 그래서 40일은 고난의 의미가 분명히 있다. 엘리야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를 했었다. 그러나 사순절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이 교수님은 "정상적인 기독교인은 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죽음, 부활을 체험하고 기념하며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주일만 주일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의 날, 성탄절이 그 날만 성탄절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날이어야 한다. 365일 주님의 날, 부활절이 되어야 한다. 안식일이 주일이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이 아침에 부활했기 때문에 매주 주님의 부활을 지키고 기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같이 매순간 부활하신 주님으로 충만해야 한다. 왜인가. 여러분에게 죽어있는 부분이, 부활해야 하는 부분이 삶 속에서 너무나 많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고난 주간의 시작인 종려주일부터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그리고 부활 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 정확한 복음과 그리스도를 모르면 자신들도 모르게 리우 카니발과 같이 교회와 사람을 무너뜨리는 흑암문화를 만든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모르고 하다보면 사단의 문화로 가게 되어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1. 고난주간부터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다.

(1) 예수님이 고난주간 첫 날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어린나귀를 탄다는 내용이 스가랴서 9정 9절에 나온다. 어린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말씀의 성취를 뜻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씀대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왜 예언하셨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몇 천 년 전에 예언되어서 성취된 내용이 성경 외에는 없다. 그런데 그런 일이 성경에 나와 있다.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예언되어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아니면 그 내용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타고 입성하는 것도 다 예언되어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줄 믿기를 바란다. 한 번도 등에 짐을 지지 않은 어린 나귀는 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셨다. 나도 한 번 제주도에 가서 해보려고 한다.(웃음) 그러면 나귀가 확 튈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타실 때 나귀가 얌전한 것을 보고 '저 분이 참된 왕이구나.'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러나 유대의 지도자들은 믿지 않았다. 서민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종려가지를 뿌리면서, 정확한 복음의 의미를 모르지만 그래도 받아들인 것이다.

(2) 두 번째 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상인들이 하는 것들을 뒤집으셨다.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상인들이 성전을 장사하는 장소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뒤엎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뒤집어진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의 이권 건드리면 뒤집어지지 않는가. '저 사람은 누구인데 와서 우리의 수입원을 엎어버리는가.' 그 때 당시에는 자릿세를 받았다. 그 사람들이 양과 소를 팔면서 수입을 얻었다.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집인데 변질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건드신 것이다.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자 다음날 유대인 지도자들이 와서 질문한다. 그 질문한 이유는 예수님 앞에 가서 겸손하게 배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책잡아서 손해보게 하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책잡게 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답변을 해줘도 해결이 안 된다. '세례요한의 권위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질문을 하신다. '하늘에 왔느냐, 땅에 왔느냐.' 그러니까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고 인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땅에서 왔다고 한다면, 백성들이 인정하고 세례요한이 인정하고 있는데 땅에서 왔다고 하면 그들이 항의하고 돌로 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또 질문을 한다. '이 로마 돈을 가지고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 때 당시 세금을 내는 것은 국가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황제 상에게 내는 것이다. 황제에게 복종한다는 충성, 우상의 뜻이 있었던 것이다. 내라고 하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고,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옭아매기 위해서 질문을 일부러 한 것이다. 배우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리라.' 대답하니까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는데 질문을 했다.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한 여자와 결혼을 다 했는데 다 죽었습니다. 천국에 가면 도대체 누구의 부인입니까?' 물은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에는 결혼도 없고 남자도 없고 천사와 같다.'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천국을 아는데 그들은 천국을 모르기 때문이다. 변론에 져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는가. 그렇지 않고 낙심했다.

(3) 그리고 수요일에는 아무 행동을 안 하셨다고 하지만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 옥합을 깬 여인이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심상치 않은 것이다. 곧 돌아가실 것 같은 것이다. 그래서 자기 결혼 자금인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 아래에 두었다. 돈만 좋아하는 제자들은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왜 낭비하냐고 했지만 이 여인은 시간표를 안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분위기가 이상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또 눈치 빠른 사람이 있었다. 가룟 유다였다. 다윗처럼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는데 죽으려고 용쓰는 것이다. 왜냐면 유대사람을 건드리는데 그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이권에서는 눈치가 빠른 가룟 유다였다. 선한 것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어리석기를 바란다. 반대로 악한 데는 선하고 선한 데에는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의 수준이 달라져야 한다.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악해지면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 예수님의 부활로 완전히 틀이 바뀌어서, 시기, 질투 하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없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그런 여러분의 체질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눈치가 빨랐다. 성전궤를 맡지 않았는가. 예수님을 팔아서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팔 권한도 없는데. 악과 악이 만난 것이다. 그래서 수요일은 헌신과 배신의 날이다.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그것은 직장, 교회,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한다. 인생을 깨닫게 해주었으니까. 여러분이 그분들에게 학원비를 내야 한다. '인생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안 좋은 일을 한 사람에게도 감사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런데 나에게 선한 것을 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감사해야겠는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 앞에서는 얼마나 감사해야겠는가. 그러한 체질로 완전히 틀이 바뀌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린다.

금요일에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상칠언을 하셨다. 토요일 사망 후 무덤에서 40시간을 계산해보면 3일이다. 사실 금요일 오후에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40시간이다. 그것이 고난의 상징이다. 성경은 숫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날짜가 안식 후 8일째이다. 성경에서 8이라는 것은 구원의 숫자이다. 안식 후 첫 날은 7일이 아니라 8일이다. 구약시대에 보면 노아의 방주 때 식구가 8명이었다. 8이 구원의 의미를 담은 것이 여러 번 나온다. 8을 90도 회전해보면 무한대이다. 그런 의미도 있다. 구원을 받을 때 영생할 수 있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다.

(4) 다음은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말씀하신 가상칠언이다.

① 첫 번째는 용서의 말씀이다. 누가복음23장 34절이다. 생살에 못이 박히면서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주옵소서.' 우리는 그런 경험이 많다. 누가 피해, 상처를 줬을 때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기도해줘야 한다. '하나님 저 사람들을 용서해주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정말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부분 여러분에게 피해, 어려움을 준 것은 정말 몰라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싸우거나 원망하는 것보다 기도해줘야 한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이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② 두 번째는 구원의 말씀이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마지막까지 한 편 강도를 구원하셨다. 한 편 강도처럼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구원받기를 축원드린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사람이 죽고 다시 부활하겠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것이다. 우리에게 영생하기 위한 모델로 주신 것이다. 그리고 객관적으로도 증거가 많다.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다. 먼저 기절설이 있다.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졌는데 그것은 의학적으로 심장이 터졌다는 것이다. 기절했다고 말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안 죽었다는 이다. 예수님의 시체를 동굴에 안치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붕대를 풀고 낮은 포복으로 나와서 6톤짜리 돌문을 밀어서 나온다고 해보자. 밀어내면 누가 있는가. 밖에 군인들이 있었다. 예수님이 나오셨다면 군인들이 다시 찔러 죽이지 않

았겠는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말이다. 그 제자들이 수백 년 동안 부활한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다. 부활한 주님을 보지 않았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 도난설도 있다. 도망간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가지고 어디다가 썼겠는가. 그렇다면 로마 사람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가정하면 부활하셨다고 했을 때 오히려 시체가 여기 있다고 하지 않겠는가. 로마의 정권에 위협을 주는 기독교 단체인데 당장 내놓지 않겠는가. 환상설도 있다. 한 두 사람이 환상을 보기도 힘든데 오백형제가 일시에 본 환상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것들이 다 맞지 않은 말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③ 위탁의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9장 26절-27절이다.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 마리아와 아들인 요한에게 말씀하셨다.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아들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라.' 말씀하셨다. 요한은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같이 보호했다. 인간적인 책임, 부모님에 대한 책임을 무시하지 않았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요양원 만들어야 한다. 중직자들이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2-3일 있다가 천국 가시기를 바라지만, 우리들이 지금 다 흩어져있지 않은가. 요양원을 만들어서 랜넌트들이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의사 되어서 그 분들을 케어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한다. 그 목표를 가져야 한다. 예수님이 노인복지를 하고 가신 것이다. 인간이 해야 할 역할이다. 그것이 십자가이다.

④ 원망의 말씀도 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럴 때는 원망해라. 그러나 예수님처럼 주신 사명을, 십자가를 포기하지 말고 감당하기를 바란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⑤ 고통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목이 마르다 말씀하신다. 사막을 건너서 목마를 때, 앞에 생수, 삼겹살, 탕수육, 짬뽕, 양장피가 있으면 목마른 사람이 무엇부터 먹겠는가. 가장 급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수일 것이다. 목마른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다. 그래서 지옥고통이라고 한다. 우리도 목마를 때가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주님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⑥ 승리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구원에서 다 완성하셨다. 이제 여러분이 영접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면 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⑦ 그리고 천국 소망의 말씀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

2. 부활 후 40일 동안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과 의미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부활을 목격한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11번이나 반복해서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1) 예수님은 부활 후 첫 번째로 만난 사람들이 바로 연약한 여인들이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이른 아침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오늘 이 시간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지위있는 교수들, 대기업 총수를, 국회의원들은 부활절에 예수님을 못 만난다. 왜냐. 헛되고 헛된 것들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여인은 세상적으로 귀신들리고 영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했다. 꼭 부활을 믿는 것은 아니었지만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가게 된 곳에서 믿게 되었다. 혹시나 하고 갔는데 역시나가 된 것이다. 여러분도 확실히 믿고 응답 받는 분들이 되길 축원한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에 시달린 경험이 있던 영적 문제가 많은 여인이었지만 가장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다. 교만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 어린 아이처럼 죄인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가 그리스도 부활의 주인공인 줄 믿기를 바란다. 그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 감사한 것이다. 그것 때문에 겸손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2)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8번이나 나타셨다. 저는 '40일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순교를 하였을까?' '예수님은 왜 8번이나 제자들에게 자주 나타나셨는가?' 하고 생각을 했다. 그 때 당시 제자들의 영적상태는 핍박을 이겨내고 로마를 복음화 할 만한 믿음의 수준이 아니었다. 그래서 한두 번 나타나서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번 나타나면 각인이 되고 평생 안 잊을 것 같다. 이해가 되더라.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기회를 여러 번 주신 것이다. 강도는 한 번의 기회를 붙잡았지만 우리는 강도보다 못하다. 여러 번 기회를 주셔서, 오직예수와 이 복음으로 제자들처럼 가게 끔 하시는 것이다.

(3)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신다. '내 양을 먹이라.' 무슨 말인가. 자격이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하신 것이다. 연약하고 부족해도 목사하고, 어떤 장로님들은 '부족해서 못해요.' 하신다. 대통령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 다 부족하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함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다 시몬이 몇 십 년 후에 부족함이 없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거듭나지 않았는가. 완전히 새 틀로 거듭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특별히 유아세례, 입교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길 축원드린다.

(4) 부활하신 주님은 당신이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체로 부활하심을 증명하셨다. 나사로는 부활한 것이 아니라 소생했다. 다시 죽은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로운 육적인 몸으로 부활하셨다.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육체였다. 그래서 영이 아닌 부활체다. 누가복음 24장 43절에 보면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우리에게 영이지만 부활체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육신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상하게 요한1서 4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라고 말한다. 이상하게 이단들은 예수님의 육적인 승천, 육적인 초림, 재림을 믿지 않는다. 다 영적이라고만 말한다. 그들에게는 성령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5) 주님께서는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주셨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부활의 메시지이다. 온 땅을 다니며 온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 여러분이 다니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란다. 과거에는 해외에 나가고, 여권을 만들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여권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것 같다. 중국만 비자가 만들어지면 더 편할 것 같다. 미국 여권보다 편하다. 미국이 들어가지 못하는 무슬림권에도 우리는 들어가기 쉽다. 왜 그렇겠는가. 세계복음화하라고,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기 위함이다.

(6) 부활 후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승천의 장면에서는 너희가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아버님이 세계의 축구 중계를 보시면서 "전 세계가 위성으로 보는 시대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전 세계 사람이 이렇게 위성으로 볼 수 있겠구나."하고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같은 분이 이단이라니까요? 성경에 예수님이 본 그대로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거기에 다른 것을 섞으시냐."라고 대답했다.(웃음) 어떻게 하면 다 보이실까.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빛의 속도로 지구를 돌며 내려오시면 된다. 번개 치듯이 내려오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 예수님이 조금 어지러우시겠지만 번개 치듯이 돌며 내려오시면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다.(웃음) 여러분의 기준으로 무조건 한 곳에서만 내려온다 생각하지 마셔라. '남극, 북극에서는 어떻게 볼까?' 걱정하지 마셔라.

3.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부활을 목격한 그들은 완전히 옛 틀에서 새 틀로 변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1) 이기적인 그들이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거듭나고, 달라졌다고 말해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2) 로마군인들과 유대종교지도자들을 두려워했던 그들이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담대히 오직 예수를 증거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

(3)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우리도 이 응답을 받아 237개국을 살려야한다.

(4) 이 세상 것, 헛된 것들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올인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

(5) 나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살았던 그들이, 성령충만 받아 땅 끝까지 증거하는 성령인도받는 사람이 되었다.

결론에서는 부활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말하며 말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1.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완성이다. 여러분이 믿기를 바란다. 내 안에 완성되는 것이다. 주님은 주님이 하실 일을 다 이루었다.

2.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임을 증명해주는 사건이다. 독일의 어떤 학자가 "내가 예수보다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이니 나를 믿으라."고 말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대답으로 "맞다. 그러니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죽었다 살아나셔야 한다." 저 말이 맞다. 다른 이단은 죽은 것이다.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그런데 안 죽는다고 말한다. 이만희 본인 혼자 지옥 가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낸다. 이런 자는 사단에 완전히 매인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 신천지와 대화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간단하다. 우리 성도들도 신천지에 가서 교육받고 하다가 이만희가 그리스도라 말하니 그것을 듣고 빠져나왔다고 한다. 기존에 교회에서 복음을 듣던 사람은 '이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다'하고 듣다가 빠져나올 수 있지만, 처음부터 신천지에 간 사람들은 하나의 종교라 생각해서 그렇게 말해도 그 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그들을 변화시킬만한 복음을 가지고 증거해야 한다.

3.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 사탄, 지옥이라는 근본문제가 깨끗이, 확실히, 영원히 해결된 사건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4. 그리스도의 부활은 말씀의 성취된 사건이다.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했다.

5.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다.

6. 부활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 이후의 많은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었을 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확실한 이유와 근거였다.

7. 부활은 재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건이다.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날마다 부활의 역사가, 절대 불가능한 것을 절대가능으로 바꾸는 응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길 축원한다.

8. 마지막으로 부활의 의미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생할 수 있음을 증명해 주신 모델적인 사건이다.

끝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올인하여 가장 가치있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오늘 유아세례를 받는 자, 그리고 함께 하는 부모님, 모든 입교, 세례자들에게 이러한 응답이 영원토록 있길 축원한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의미, 고난의 의미, 사순절의 의미를 새로 되새겨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방향을, 언약의 여정의 방향을 다시 잡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델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자들도 부족해서 주님께서 8번이나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마시고 끝까지 붙잡아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켜주셔서 부활체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까지, 그래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지금부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